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 개최
100개이상 기관참가 1:1 채용상담



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가 9월 1·2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내 일(JOB)을 잡자'라는 슬로건으로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이같이 개최한다고 지난 8월 22일 발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농협, 삼성웰스토리, 파리크라상, 제일사료 등 다수의 민간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약 100개 이상의 기관이 참가해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1:1 채용 상담을 한다.

이를 위해 기업 채용설명회 및 농식품 창업 컨퍼런스가 열린다. 기업 채용설명회는 공개 채용설명회를 개최해 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채용정보 및 업무 특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주)파리크라상 등 10개 기업의 공개 채용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현장방문이 어려운 구직자들도 SNS를 활용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창업 컨퍼런스는 농식품분야에서 성공한 청년 창업가가 자신의 진솔한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청중이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크쇼 형식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국제 심포지엄
공동 대응위한 실질적 정보 교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진단과 설립 1주년을 맞아 '조류인플루엔자 국제 심포지엄'을 8월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내 및 해외 저명한 AI 전문가들을 초빙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해외 발생 정보, 방역 현황 및 연구 동향 등 고병원성 AI 공동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로, 농식품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관계관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포함해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을 운영하는 HPAI 국제협력 전문가인 영국 동식물위생청의 Ian Brown 박사와 일본 국립동물위생연구소의 Takehiko Saito 박사 및 미국 농무성 산하 남동부기금 연구소 Mary Pantlin-Jackwood 박사가 고병원성 AI에 대한 수의공중보건 및 식품안전상의 위협과 각국의 발생 현황 및 최근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서울대 김재홍 교수와 질병관리본부 강춘 과장의 강연도 진행됐으며,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의 미래 전망에 대한 종합토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연구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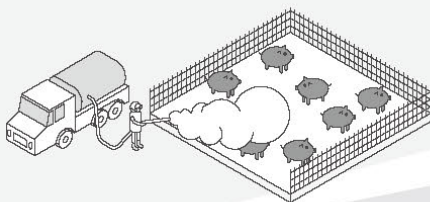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18년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ASF대비 철저한 선제적 현장방역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중)는 8월 21일 세종시 소재 본부 회의실에서 '2018년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임경중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서 3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위생방역 본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선제적인 현장 방역 활동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가축 전염병 예방·치료 채취, 수입 축산물 검역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가축 질병 청정화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접수(안) 보고를 시작으로 복무규정 개정(안), 연봉제 규정 제정(안), 급여규정 개정(안), 여비규정 개정(안), 본부장 추천위원회 구성(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안전한 식생활 실천유도 캠페인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4,000여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영업자 안전수칙, 고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등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병행 실시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학원가 등 주변에 떡볶이, 빙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25,578곳을 점검한 결과,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건) ▲건강검진 미필(1건) ▲기준 및 규격 위반(1건))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삶의 질' 높일 정책 마련
2018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농어촌 주민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가 시작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리승용)은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2018 농어업인 복지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 이는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을 근거로 추진한다.

2013년에 이은 제4차 종합조사로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보건 의료와 복지, 교육, 문화·여가, 기초 생활 여건, 환경·경관, 지역 공동체, 경제 활동 등에 대해 알아본다. 조사 요원이 직접 방문해 가구주나 배우자에게 설문지를 제공하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결과는 2019년 3월 발표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황정임 농업연구사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식량정책연구소와 연구협력 강화
농업 생산성 증진·지속가능성 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8월 9일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소장 Sheng-gen Fan)에서 지난 2015년 7월 체결한 연구협력협정(MOU)을 향후 3년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농업부문의 오랜 화두인 농업의 생산성 증진과 지속가능성 확보, 농촌 개발과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혁신·데이터·식품·북한·통상 부분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실질적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도 합의했다. 첫째, 양 기관 간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둘째, 양 기관이 협력해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ERS),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CAAS/IAED),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 등도 협력 대상에 포함시켜 다자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올해 양 기관이 각각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상호 참석해 교류를 지속한다.

HACCP인증원

**식품안전관리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국민 안심먹거리 정보제공 확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8월 22일 청주 본원에서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정보의 활용과 개방 확대를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인 '식품안전관리 데이터(HACCP DB) 개방 체계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식품안전분야 정보 개방·연계 활용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올해는 축산물 HACCP 인증업체 API에 가공식품분야 업종을 추가해 API를 확대·개방하는 한편, 식품분야 HACCP PLAN을 전산화하고 소규모 업체용 HACCP 전산관리기준서와 기록일지를 개발한 종합 DB구축을 통해, HACCP 희망업체, 소비자 등 수요자에게 HACCP운영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업체 스스로가 상시 등록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업체의 자발적 정보제공과 함께 일반시민 대상 HACCP 홍보 효과도 제고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역량강화 연찬회
업무 담당자간 네트워킹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AI 정밀진단 역량 강화 및 업무 담당자간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역량강화 연찬회'를 7월 12일~13일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조류인플루엔자 업무 관계관 120여명이 참석해, AI 진단 업무 및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으며, 방역 현장 및 실험실 진단에 대한정보 공유의 장이 됐다.

특히, AI 정밀진단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통해 AI 방역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교류하고 AI 정밀진단 업무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향후 정밀진단 효율화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또한, 국내 발생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특성,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 AI 정밀진단기관 운영 현황의 3가지 연제로 강의로 진행되어 AI 담당자의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했다.